“독립·예술영화 배급 현장에서 활약을 기대하며!”

독립영화 배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

인디그라운드 배급 아카데미 1기 수료식 진행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 배급 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에서 설립한 인디그라운드의 배급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이 지난 4월 24일(토) 인디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다.

**‘인디그라운드 배급 아카데미’는 독립영화 배급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다.** ‘배급 아카데미’ 1기는 총 236명의 지원자 중 선정 과정을 통해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초첨을 맞추어 15명의 교육생을 선발, 지난 2월부터 10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강사진으로는 영화제, 배급사, 커뮤니티시네마 관계자 그리고 독립영화 감독까지 오랜 기간 독립영화 배급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경험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인디그라운드 배급 아카데미 1기 수료식 현장

수료식은 수강생들이 직접 작성한 배급기획서 발표와 강사의 피드백을 전하는 마지막 수업 후 진행되었다. 자리에는 배급 아카데미의 강사로 참여한 인디그라운드 조영각 센터장, 영화사 진진 정태원 차장, DMZ인더스트리 조영란 프로듀서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팀 임우정 대리가 참석하여 강의 과정 내내 높은 참석률과 참여율을 보인 수강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조영각 센터장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지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립영화 배급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고마움을 전했으며, 정태원 차장은 **“수강생들의 기획서 퀄리티에 놀랐다. 바로 실무를 진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조영란 프로듀서는 **“앞으로 독립영화 배급의 흐름이 다르게 보이실 거라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적절하고 가능한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좋겠다“**라며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보탰다.

인디그라운드 배급 아카데미는 독립영화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길 원하는 수강생들에게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 산업 관계자와 수강생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이후에도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배급 현장 진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수강생과의 밀도 높은 교육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인디그라운드 배급 아카데미’는 추후 2기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인디그라운드 indieground@indieground.kr | Tel. 02-2233-0969 | www.indieground.kr**